

중국 국방정책 어디로 향하는가 -2010 중국 국방백서를 중심으로-

- 일시 | 2011년 6월 14일 (화) 오후 2:00-5:00
- 장소 | 평화재단 강당
- 주최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 프로그램 ●

사회 이원봉 경희사이버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중국학과 교수

| | | |
|-------|------|--|
| 14:00 | (5) | 개회 |
| 14:05 | (5) | 여는말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
| 14:15 | (20) | 발표1 박창희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학부 교수 중국인 말하는 중국 국방정책 |
| 14:35 | (20) | 발표2 박창권 한국 국방 연구원 국방전문 연구위원 미국이 바라보는 중국 국방정책 |
| 14:55 | (20) | 토론 1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2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 15:15 | (20) | 질의 응답 |
| 15:35 | (15) | 휴식 |
| 15:50 | (60) | 전체 토론 |
| 16:50 | (10) | 닫는말 |
| 17:00 | | 폐회 |

● 차례 ●

| | | | |
|----|-------|--|----|
| 4 | 발 표 1 | 중국인 말하는 중국 국방정책 박창희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학부 교수 | |
| | 1. | 개요 | 5 |
| | 2. | 국제질서 및 안보환경 평가 | 7 |
| | 3. | 중국의 대외정책 | 9 |
| | 4. | 중국의 국방정책 | 11 |
| | 5. | 군사력 건설과 군사전략 | 14 |
| | 6. | 대외 군사협력 | 16 |
| | 7. | 결론 및 시사점 | 17 |
| 20 | 발 표 2 | 미국이 바라보는 중국 국방정책 박창권 한국 국방 연구원 국방전문 연구위원 | |
| | 1. | 서론 | 21 |
| | 2. | 본론 | 22 |
| | 가. | 중국에 유리한 안보환경과 전략적 경쟁의 심화 | 22 |
| | 나. | 대만에 대한 이중적 정책과 대내외적 안보 위협 인식 | 24 |
| | 다. | 국방의 투명성 여전히 미흡 : 국방예산과 군사능력 | 26 |
| | 라. | 중요한 목적은 국제사회를 안심시키는 것(Reassurance) | 28 |
| | 마. | 군사력 임무의 확대 및 현대화 노력의 가속화 | 31 |
| | 바. | 접근 거부 및 전력투사 능력과 전략적 능력 | 34 |
| | 3. | 결론 | 38 |
| 40 | 참고자료 | 2010 중국 국방백서 요약본 | |
| | | 서 언 | 40 |
| | | 제1장 안보정세 | 40 |
| | | 제2장 국방정책 | 41 |
| | | 제3장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건설 | 42 |
| | | 제4장 무장역량 운용 | 45 |
| | | 제5장 국방동원과 예비역량 건설 | 47 |
| | | 제6장 군사법제 | 48 |
| | | 제7장 국방과학기술공업 | 50 |
| | | 제8장 국방예산 | 51 |
| | | 제9장 군사 상호신뢰 구축 | 52 |
| | | 제10장 군비통제와 군축 | 54 |

중국이 말하는 중국 국방정책

박창희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학부 교수

1. 개요
2. 국제질서 및 안보환경 평가
3. 중국의 대외정책
4. 중국의 국방정책
5. 군사력 건설과 군사전략
6. 대외 군사협력
7. 결론 및 시사점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48차 전문가포럼
중국 국방정책 어디로 향하는가
2010 중국 국방백서를 중심으로

펴낸날 2011년 6월 14일 | 펴낸곳 재단법인 평화재단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93-7 서초이오빌 3층
(우 137-875) | 전 화 02-581-0581 | 전송 02-581-4077 | staff@peacefoundation.or.kr |
www.peacefoundation.or.kr

발 표 1

중국이 말하는 중국 국방정책

박창희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학부 교수

1. 개요

○ 국방백서 발간 배경

- 2011년 3월 31일 중국은 2010년 『중국국방백서(中國的國防)』를 공개
- 중국은 1998년부터 2년 단위로 국방백서를 발간해 오고 있음
 -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 및 주변국들이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인식,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
 - 8개국 언어로 동시 발간 :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일어, 아라비아어
- 『중국국방백서』는 중국정부가 공개하는 군사안보 관련 유일한 공식문서
 - * 중국의 국제정세 평가, 위협인식, 안보정책 및 국방정책, 군사전략 및 최근 군사동향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임
- 다만, 금번 백서가 약 3개월 연기되어 발간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발표 시점을 연중 최대 행사인 양회(兩會) 이후로 설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정치적 행사 결과를 반영하여 국방정책을 제시하는 형식을 갖추
 - 작년 악화된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1월 미중 정상회담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방중 결과를 정리할 시간 필요
 - 재스민 혁명의 영향평가

○ 이전 국방백서와의 차이점

- 국제질서의 다극화 추세에 대한 확신
 - 경제위기 및 군사적 과도신장에 따른 미국 국력의 상대적 약화
 - 중국의 부상 및 G20 중급국가들의 약진 반영
-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에 따른 대외 자신감 표출
 - 중국의 운명과 세계의 운명을 불가분의 관계로 상정하여 중국의 안보, 발전, 이익을 세계의 평화, 발전, 이익과 연계
 - 중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및 영향력 증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냄
- 2010년 백서에서 새롭게 소개된 내용
 - 처음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제하의 장을 별도로 편성, 작년도 중국의 단호한 대외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회석 시도
 - 중국군의 합동작전체계, 군사법체계 건설과 법률법규 등을 처음으로 제시
- ‘새로운 형태의 전투력 개발’ 추구 및 우주, 전자,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이익 확보를 언급함으로써 미국이 우려하는 ‘반접근 및 지역거부(A2/AD)’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
-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 반영
 - * 2008년 백서는 북핵 관련 6자회담이 점진적인 성과를 거둬으로써 동북아 지역 정세는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2010년 백서는 6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

○ 전반적 평가

- 중국군의 급속한 현대화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진정시키려는 측면과 현대화에 따른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측면이 혼재
 - 평화적 대외정책 추구 및 방어적 국방정책 강조
 - 동시에 군 정보화의 차질 없는 이행 / 성과 과시
- 평화공세 강화와 군사력 증강이라는 양면성을 드러냄
 - 미국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핵심이익’과 같은 도발적 언어 미사용, 대만에 대한 평화공세 강화, 중국의 평화적 대외정책 및 방어적 국방정책 강조
 - 그러나 12.7%의 국방비 증가, 신형 무기체계 개발, 대만을 겨냥한 1,000

- 기 이상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배치 등은 나름대로 하드파워를 꾸준히 증강해 나가겠다는 현실적 의도를 반영한 것
-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했으나 군사적 불투명성 여전
 - 중국의 국방정책, 군사동향 및 국방비 내역 등을 비교적 상세히 공개하였으나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항공모함, 쟌(殲)-20 스텔스 전투기, DF-21C 탄도미사일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 군사력 증강 목표와 의도, 작년 물의를 빚었던 남사군도 관련 '핵심이익' 발언 등에 대한 입장이 생략됨

2. 국제질서 및 안보환경 평가

○ 국제질서 다극화에 대한 자신감 표출

- 국제질서 다극화는 1990년대 이후 중국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로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
- 1990년대 후반에서 21세기 중반까지 미국을 정점으로 한 초단극적 국제질서가 형성되자 중국은 국제정세를 다극화의 '과도기'로 표현하였으나, 최근 다극화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음
 - 2006년 국방백서 : “과도기의 중대한 시기”로 규정
 - * 중국은 1999년 코소보전쟁 직후 미국의 유일패권을 인정하고 단기간 내 국제질서 다극화의 어려움을 인식
 - 2008년 국방백서 : “기세(모멘텀)가 형성되는 시기”로 규정
 - 2010년 국방백서 : “다극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규정
- 이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 및 서구 국가들의 재정긴축 상황과 대테러전에 따른 미국 군사력의 과도한 신장,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유리한 국제정치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인식

○ 안정된 안보환경 인식과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전략기조 유지

- 중국은 2010년대를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파악
 - 금융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가장 안정된 안보환경을 맞이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다음과 같은 안보도전 요인에 주목
 - 국가영토주권에 대한 도전 증대
 - 자연재해, 자원, 해적 등 초국가적 위협
 - 대만, 신장, 티베트 지역의 독립세력
- 중국은 이러한 안보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안보, 협력안보, 공동안보를 추구할 것임을 언급
 - * 대다수 위협은 당장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국제협력을 통해 대처하겠다는 의도

○ 중국의 대미 견제심리 속에 관계회복 의지 내포

-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return to Asia)'에 대한 견제심리 존재
 - 미국의 지역 내 군사동맹 강화와 안보문제 개입이 이 지역 안보 지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
 - 전통적 강대국(미국)과 신흥 강대국(중국) 간의 모순이 표면화되고 있음을 지적
 - 미국이 우주공간, 인터넷, 극지 등으로 군사경쟁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
- 그러나, 신흥 강대국으로서 중국은 현재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
 - * 중국은 지난 1월 게이츠 장관의 방중과 5월 천빙더 총참모장의 방미를 계기로 2010년 악화된 양국관계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
 - *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며, 미중관계가 제로섬(zero-sum)적 경쟁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

2010년 이후 미중관계 악화 일지

- 2010년 1월 오바마의 대만 무기판매 결정
- 2월 오바마의 달라이 라마 면담
- 5월 서해 공해상 미 해양관측선 빅토리어스(Victorious)호와의 긴장고조
- 6월 중국의 게이츠 장관 방문요청 거부와 싱가포르 동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대만 무기판매를 둘러싸고 벌어진 게이츠와 마샤오텐의 설전
- 7월 하노이에서 남사군도 관련 힐러리와 양제츠의 신경전
- 9월 센카쿠 열도 문제를 놓고 미중 양국 외교부의 충돌
- 12월 미 태평양사령관(Robert F. Willard), 동평(DF)-21C 대함탄도미사일 위협 언급
- 2011년 1월 게이츠 방중 시 중국의 J-20 전투기 시험비행

○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각한 우려 불구, 원론적 입장 유지

- 중국 정부는 최근 한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한 상황을 감안한 것임
-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평화적 협상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피력,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임을 밝힘
- ※ 이는 기존 중국의 입장을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한 데 불과한 것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과 정책에는 변화가 없음

3. 중국의 대외정책

○ 대외정책 기조

- 자주독립의 평화외교정책 추구
 - 이는 중국이 2012년으로 예정된 권력이양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상승추세를 탄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국제환경 조성이 필수적임을 나타냄
 -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국제전략 및 안보 상황이 전적으로 만족스럽지

는 않지만 현재의 구도를 흔들기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 패권 및 군사적 팽창 추구 부인
 - 지속적 경제성장에 상관없이 중국은 영원히 패권과 군사적 팽창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명확히 밝힘
 - 이는 일본과 아세안 등 주변국가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를 안심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작년 서해, 남사군도, 조어도 문제에서와 같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평화외교공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미지수

○ 대만과의 군사 당국자 간 대화 증진 희망

- 중국은 양안 간 군사문제에 관한 접촉을 갖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군사영역에서의 상호신뢰 메커니즘 구축 가능성 논의를 제안
- 중국의 병력배치는 결코 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군사력 배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제시
- 그러나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국방백서 발표 당일 중국이 제안한 양안 간의 신뢰구축 방안은 정부차원에서의 논의사항으로 국방부는 정부의 신뢰구축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하며 양안 간 군사대화를 사실상 거부
- ※ 2008년 마잉주 총통 집권 후의 양안관계는 정치·경제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했음에도 군사 분야에서는 전향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드러냄

○ 대외 평화공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야심 표출 가능성 잠재

- 백서에서 나타난 중국의 평화공세는 작년도 중국의 야심적 대외정책의 한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
 - 지역 내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옴
 - 아직은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종합적 국력, 특히 군사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당분간 핵심이익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 보유 (중국 국방대 교수 한쉬동의 언급)
- 중국의 능력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은 언제나 핵심이익에 대한 야심적 정책추구 가능

☞ 중국의 핵심이익

- 중국 공산당 영도하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국가정치안정을 유지하는 것
- 유리한 국제환경을 창출, 평화발전 노선을 견지, 전략적으로 기회의 시기를 조성
- 국가주권, 독립, 영토보전 그리고 대만독립 저지를 통해 국가통일을 추구하는 것
- * “Interpreting China's Grand Strategy(RAND, 2002)”의 저자인 애슐리 텔리스(Ashley Tellis)는 최근 인도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1) 국내질서 유지 및 사회복지 추구를 통한 사회주의 체제 및 공산당 1당 통치 체제 유지, 2) 대외적으로 국가주권 수호, 3) 지정학적 영향력 유지로 정의

☞ 남사군도와 중국의 핵심이익 발언

- 2004년 이후 중국의 관리, 학자, 언론에서 주권문제에 관해 ‘핵심이익’이라는 용어 사용 횟수 증가
 - * 최초 대만 언급, 그러나 지금은 티베트와 신장 포함
- 남사군도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화된 것이 없으며, 일부 비공식적으로만 ‘핵심이익’으로 간주된 바 있음
 -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 존재 예상
- 2010년 5월 다이빙궈는 클린턴에게 남사군도가 중국의 핵심이익임을 언급하였고, 클린턴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
- 7월 ARF에서 클린턴과 양제츠 간의 남사군도를 둘러싸고 설전
- 2011년 3월 장위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남사군도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주권”을 갖고 있음을 언급

4. 중국의 국방정책

○ 국방예산 증가와 군사력 증강 가속화

-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

- 2010년 국방비는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도에 비해 7.5% 정도 증가, 1989년 이후 처음으로 10% 밑으로 떨어짐
- 2011년 다시 전년도에 비해 12.7% 증가, 10%대를 회복
- 중국은 세계최대 규모인 총 23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예산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 수준을 유지
-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예산을 감안할 경우 실제 국방비는 공식 국방비의 약 1.8배 정도가 될 것
 - * 공식국방비에 누락된 예산으로는 군외 연구기관의 연구비, 인민무장경찰 예산, 무기구매예산, 인민해방군의 자체 수입(무기판매 수익, 상업활동 이익 등) 등이 있음 (SIPRI 연구)
- ※ 중국은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국의 핵심이익을 확보할 때까지 군사력을 계속해서 증강해 나갈 것임

○ 국방 및 군현대화 1단계 종료 및 2단계 이행

- 중국군은 국방 및 군현대화를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 1단계 : 2010년까지 정보화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 구축
 - 2단계 : 2020년까지 기계화를 완성하고 정보화의 가시적 성과 이룩
 - 3단계 : 21세기 중반까지 정보화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구비
- 1단계 현대화는 성공적인 것으로 자평
 -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정보화조건하 전투능력 크게 향상
 - C4ISR 기반의 정보체계 구축에 획기적 성과 달성
- 2단계 기간인 향후 10년 전망
 - 병력을 23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감축, 상비 병력을 과감하게 줄이면서 군 정보화와 첨단화를 추진
 - 재래식 전력을 포함해서 중국 본토에 대한 접근거부능력, 정밀타격능력, 핵 억지력, 원거리 공정작전능력 등의 강화에 사용될 것으로 판단됨
 - 항모 도입, 5세대 전투기 도입, DF-21C 탄도미사일 개조, 조기경보 및 공중통제능력 강화 등을 통해 정보화전쟁 수행능력 강화

○ 군수산업의 개혁, 혁신, 자족 추구

- 민군통합 전략 : 군과 민간의 요구에 공동으로 부응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 체계 연구 및 생산을 통해 민간분야에서 군 지원이 가능한 잠재력 유지
 - * 민군통합개혁 프로그램은 2004년 도입, 상업분야에서 군사프로그램 기술을 추출하는 동시에 군사기술을 상업활동에 전용토록 하는 전략임
- 방위산업 기반을 ‘재조직, 적정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5년 이내 대다수 방위산업 자회사들의 상장화 추진
 - * 방위산업 능력 개선을 위해 규제제도를 도입, 주요설비의 감시와 관리 강화
- 서구의 무기 금수조치 결과, 산업적으로 고립된 중국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우호적’ 국가들과의 산업협력 필요성 강조
 - * 중국은 최근 Su-27SK, Su-33 등 역조립 생산으로 인해 방위협력에 있어서 러시아와 꺾끄러운 관계 유지

☞ 미국 및 유럽연합의 대중국 금수조치 관련 사항

-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유럽연합은 중국이 첨단무기화할 수 있는 기술을 수출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마련
- 1990년대 중국은 무기도입 및 무기개발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 강화
- 2004년과 2010년 프랑스 및 스페인이 금수조치를 철회하고 대신 ‘행동규칙 (Code of Conduct)’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미국, 영국 등이 중국의 인권문제와 지역안보 우려를 이유로 반대
 - * 위키리크스(WikiLeaks) 폭로에 따르면 2010년 2월 미국 정부는 금수조치 철회에 강력히 반대
- 최근 유럽연합 내에서는 중국이 J-20 5세대 전투기 등 첨단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미국의 훈련기 및 헬기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려 하는 마당에 금수조치는 무의미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대다수 유럽연합 국가들은 현재로서는 당분간 금수조치 철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다만 프랑스와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 규모를 매년 늘려가고 있음

5. 군사력 건설과 군사전략

○ 군사전략과 군사력 현대화

- 중국의 군사교리는 “첨단기술조건하 국부전쟁”과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이 혼합된 것으로, 2050년께 정보화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다는 목표 설정
- 중국인민해방군 육군은 위기발생 시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전개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속대응부대(快速反應部隊)를 유지하고, 각 부대가 다른 군구 및 전역으로 이동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강화
- 해군은 “근해적극방어(近海積極防禦)”라는 전략개념을 도입하여 과거 연안에 머물렀던 활동범위를 근해로 확대
 - * 근해란 거리로 정의되기보다는 임무, 능력, 전략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갖는 용어로, 현재 근해는 1도련을 넘어 2도련에 근접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중국해군의 활동범위 확대



- 공군은 “공방겸비(攻防兼備) 현대공군”이라는 전략개념에 따라 공세적이고 독

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강화

- 중국은 핵전력을 증강하고 적극적인 핵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강대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보완

○ 동남아 및 인도양 지역으로의 진출 대비

- 중국은 동남아 및 인도양 지역에 이른바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전략’으로 일컬어지는 거점을 구축
 - * 이러한 거점으로는 미얀마 카옥푸(Kyaukpuyu) 항과 코코군도(Cocos Islands), 방글라데시의 치타공(Chittagong), 스리랑카의 함반토타(Hambantota), 파키스탄의 과다르(Gwadar),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세이셸(Seychelles) 군도로서, 중국은 중간기착지, 감청기지, 항만시설 등을 이미 완공하였거나 건설하고 있음
- 중국의 인도양 진출은 자원 확보 외에 지역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낳음
- 중국과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는 인도는 중국이 미얀마의 코코섬에 감시기지를 구축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약 70km 떨어진 안다만(Andaman)섬과 니코바르(Nicobar)섬의 비행장 활주로를 모든 종류의 전투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전함을 추가로 배치
- 항모 도입 시 하이난다오(海南島) 남단의 썬야(三亞)기지를 기항으로 하여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대한 제해권을 추구할 수 있음

○ 새로운 형태의 전투력 개발로 반접근 및 접근거부능력 강화

- 반접근 및 접근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전략은 미국의 지원전력이 대만이나 남중국해 지역에 전개되는 것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중국이 신속하게 군사목표를 탈취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
- 미국은 2010 QDR에서 중국의 A2/AD 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군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촉구
- 대만해협 유사시 중국의 반접근 및 접근거부 시나리오
 - 대만을 공격하는 동안 일본에 위치한 미군기지와 활주로를 미사일로 타격, 미 공군의 즉각 출동 방해
 - 우주공간에 배치된 미 군사위성을 파괴하여 C4ISR체계 마비

- 대만으로 접근하는 미 해상세력에 대해 잠수함, 구축함, 최신전투기를 동원하여 순차적으로 저지하되 미 항모에 대해서는 DF(同風)-21C 탄도미사일을 이용하여 직접 타격

* 중국은 항모와 같은 대형함정을 공격하기 위해 사거리 1,700km의 DF-21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목표탐지 및 추적장치를 부착, 지대함탄도미사일로 개조

○ 전쟁 이외 군사활동(MOOTW) 능력 강화

- 21세기에는 비전통적 영역에서 새로운 안보위협과 도전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군은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군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
- 티베트(西藏)의 봉기, 쓰촨(四川)지역 지진, 신장(新疆)지역의 테러리즘,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내부 소요 등 중국 내부의 정치사회적 불안정 요인은 이러한 능력을 더욱 요구
- 다만 중국군의 MOOTW 수행능력 강화는 외부의 초국가적 위협뿐 아니라 내부 안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 될 것으로 전망

6. 대외 군사협력

○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

- 경제적·군사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강대국 및 인접국의 견제를 완화시키고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지역 안보협력기구에 참여할 것임
- 미국과는 비확산대테러 및 국제안보 현안과 관련하여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
- 지역안보협력에서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를 지속확대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ARF, ASEAN+1, ASEAN+3 회담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자국의 목소리를 강화할 것임
- 주변국과는 가급적 분쟁을 야기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해상영토나 국경분쟁 문제에 있어서는 군사력을 투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군비통제와 군축

- 중국은 국제 군비통제와 군축 및 확산방지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서구 핵무기 국가들의 핵무기 우선사용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 정보화조건하 국지전 승리를 추구함에 따라 우주무기화를 비난하고 있음에도, 나름대로 우주영역에서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할 것으로 예상

7. 결론 및 시사점

○ 중국의 평화적, 방어적 정책의 의미와 한계

- 중국은 향후 강대국이 되더라도 패권이나 군사적 팽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지역 내 많은 현안에 얽혀 있기에 강대국으로 부상할 경우 훨씬 야심적이고 강압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 작년도 서해, 남사군도, 그리고 조어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과 대결적 태도를 보여준 것은 향후 중국의 부상이 평화로운 부상이 아닐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줌
- 실제로 존스톤(Alastair Iain Johnston)이나 스웨인(Michael Swain) 등의 연구는 중국의 전략문화와 전통이 평화적이고 방어적이기보다는 분쟁지향적이고 공세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
 - 냉전기 중국은 미국에 이어 대외분쟁에서 2번째로 많은 군사력 사용 경험
 - 대외분쟁에서 중국은 가장 높은 호전성(hostility)을 보여줌
- ※ 역사적으로 한국전쟁 개입, 대만포격사건(1954, 1958), 중인전쟁, 중월전쟁, 1995~1996년 대만해협 위기 등을 고려해 볼 때 강대국에 대해서는 방어적이었으나 주변국에 대해서는 공세적이었음
- ※ 중국의 '국부전쟁' 개념에는 이러한 전쟁이 중국 주변에서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므로 '방어적'이고 '정당'하다는 논리를 포함

○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지역 불안정

- 2020년까지 항모 4~6척과 제5세대 전투기 도입이 완료될 경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재래식 군사력 균형은 크게 변화할 것
 - * 나아가 중국의 지속적인 국방비 증가와 해군의 활동범위 확대, 사이버 및 우주공간에서의 군사능력 강화 추세는 지역 및 국제안보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
-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강화는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중-러의 한 축과 미-일-한의 축이 대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이러한 전략구도는 주변 약소국인 한국, 북한, 대만, 아세안(ASEAN) 국가들의 이익이 이들의 전략적 경쟁 과정에서 희생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 사례) 중소갈등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중국이 1962년 인도를, 1979년 베트남을 공격한 것은 이들이 소련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데 대한 경고였음

○ 동아시아 영토문제의 폭발력 잠재

- 작년 중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해상영유권 갈등은 이 지역에서 오히려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
 -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국가들은 미국의 개입을 노골적으로 환영
 - 동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던 일본 칸 내각의 대외정책은 조어도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태도 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
- 중국이 다시금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신뢰구축을 증진하려 하는 것은 작년 한 해 '야심적' 대외정책을 추구한 결과 나타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비록 영토문제가 아직은 수면하에 잠복 중이나 중국이 이 문제를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 다시 표면으로 부상할 수 있음
- 중국이 4~6척의 항모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진수할 경우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조어도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임

○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법 불변

-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평화적 협상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피력,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을 밝힘
 - 중국은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사안을 북핵 6자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6자회담 조기 재개를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6자회담 강조는 북한의 진정성을 담보한 것이라기보다는 작년도 북한의 도발책임을 적당히 묻어두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대북지원을 재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정권을 연명시키려는 의도로 보임
 - 따라서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궁지에 몰린 북한의 기를 살려줌으로써 더욱 도발적인 대남정책을 추구하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 다만 중국의 6자회담 추진을 위한 전방위 외교 시, 남북대화외 6자회담의 '병행' 또는 '분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대외군사협력 영역 및 가능성 확대

- 중국은 지난 10년간 주변국과 신뢰구축 차원에서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여기에는 미, 영, 프, 오, 일,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포함
 - 또한 22개 국가와 국방정책 및 안보대화를 구축하고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이는 중국의 부상과정에서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 다만,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에서 나타난 중국의 태도 고려 시 안보문제에 관한 한 중국에 대한 희망적 사고나 과도한 기대는 금물.¹⁹⁾

미국이 바라보는 중국 국방정책

박창권 한국 국방 연구원 국방전문 연구위원

1. 서론

2. 본론

- 가. 중국에 유리한 안보환경과 전략적 경쟁의 심화
- 나. 대만에 대한 이중적 정책과 대내외적 안보 위협 인식
- 다. 국방의 투명성 여전히 미흡 : 국방예산과 군사능력
- 라. 중요한 목적은 국제사회를 안심시키는 것(Reassurance)
- 마. 군사력 임무의 확대 및 현대화 노력의 가속화
- 바. 접근 거부 및 전력투사 능력과 전략적 능력

3. 결론

미국이 바라보는 중국 국방정책

박창권 한국 국방 연구원 국방전문 연구위원

1. 서론

중국 국방백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로서 중국의 국방정책과 전략을 이해시키고 국방 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국방백서를 지난 1998년부터 매 2년마다 발간해 왔으며, 2010 국방백서는 2011년 3월 말에 공개되었다. 중국의 경우 미국이나 서방세계와 달리 안보전략과 국방정책에 대한 정부자료가 없기 때문에 국방백서는 국방정책뿐만 아니라 안보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그럼에도 중국 국방백서는 미국 등 서방세계의 요구에는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군사력 현대화의 목표와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이 매우 제한적이며, 국방예산의 규모와 운용에 대한 의혹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국방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방백서와 미 국방성의 중국 군사력에 대한 의회 보고서 등 다양한 종류의 군사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의 목적은 중국 국방백서에 대한 미국 측 분석과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국방정책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다. 중국 국방백서에 대한 평가의 경우 해군연구소(Center for Naval Analysis)에서 이와 관련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의회연구소(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해리티지 연구소(Heritage Foundation), 국제평가 및 전략센터(International Assessment and Strategy Center) 등에서도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국방백서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분석을 기반으로 미국이 중국의 2010 국방백서와 국방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중국 2010 국방백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이 관

심을 갖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한 평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가. 중국에 유리한 안보환경과 전략적 경쟁의 심화

국제안보환경은 중국에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중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¹⁾ 2010 국방백서는 경제적 세계화와 다극화 추세는 되돌릴 수 없는 현상임을 밝히고 있다. 국제적 세력균형이 신흥 강대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력 및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의 증대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다극화하는 양상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국제체제의 변화 현상으로서 세계경제 및 금융 관리 메커니즘은 새로운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G20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유엔 및 기타 국제 정치·안보 체계 개혁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국제안보 환경에 대해서는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다극화, 국제레짐에서 중국 등의 영향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변화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미국 등 기존의 주도적 세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중국 등 신흥 강대국들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는 유리한 전략적 환경으로의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국방백서에서 세계화와 다극화가 모멘텀을 확보하였으며 신흥 강대국 집단이 등장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질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0 국방백서에서는 중국이 새로운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으며, 중국은 국제사회와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윈-윈 협력을 통해 미래를 개척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중국은 자신의 미래 운명이 국제사회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로이 명시하고 있으며 상호 신뢰, 상호 이익, 평등과 협조의 안보개념을 유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중국의 이익과 세계의 이익, 중국의 발전을 세계의 발전과, 중국의 안보를 세계의 평화와 연결함에 의해 중국이 주장하는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조화세계를 구축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2008년 국방백서에서는 국제사회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세계와 고립된 상태로는 발전할 수 없으며, 세계는 중국 없이 번영과 안정을 향유할 수 없다고 표현하였다. 2010년 국방백서에서 중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자신감을 확

1) Center for Naval Analysis, CNA China Studies: Panel Discussion on China's Defense White Paper, April 24, 2011.

실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과 갈등적경쟁적 관계에 있음을 비교적 완곡하게 명시하고 있고 안보 위협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증시하고 있다.²⁾ 2010 국방백서는 국제 질서에 대한 전략적 경쟁이 증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전통적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고, 국제적 군사경쟁이 격렬히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요 안보위협으로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갈등과 구조적 문제들이 아직 해결 되지 않았으며, 세계경제의 회복 상태는 아직 취약하고 불균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안보에 대한 위협과 도전은 전통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요인,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안보 접근방식과 메커니즘은 이러한 다양한 안보 이슈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제적 군사 경쟁과 관련해서는 일부 강대국이 우주 공간, 사이버 공간, 극지역, 전지구적 신속타격 능력의 개발, 미사일 방어체계의 개발, 새로운 전략적 주도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부 강대국은 사실상 미국을 지칭하고 있지만 국방백서는 미국을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2008년 국방백서에서 강대국들이 안보 및 군사전략을 재조정하고 국방 투자를 증가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을 하였던 것에 비해 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안보적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국방백서는 패권주의와 권력정치를 강조하였으나, 2010년 국방백서는 이러한 표현을 삭제하고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여건은 2008년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안정적이나 주요 안보적 갈등 요인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은 여전히 영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경제적 동력과 성장, 상하이협력기구(SCO)를 비롯한 다양한 다자간 경제안보 협력체제의 역할에 따라 국가 간 협조가 진전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태지역 안보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아주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에서 간헐적으로 긴장 상황이 발생하고 아프간 안보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며 중족 및 종교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며 영토 및 해양관할권과 이익에 대한 갈등이 때때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테러분자, 분리주의자, 극단주의자들이 날뛰고 있다. 관련 강대국들이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역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안보 문제에 대한 개입을 증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8년 국방백서는 미국이 전략적 관심과 개입을 증대하고 있으며,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고 군사력 전개를 조정하며 군사

2) Ibid.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2008년에 비해 2010년 국방백서는 미국의 행동을 다소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

나. 대만에 대한 이중적 정책과 대내외적 안보 위협 인식

2010 국방백서는 과거 국방백서와 달리 대만 문제를 상당 부분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대만에 대한 정치전 개입(political warfare intervention)을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³⁾ 무엇보다 중국-대만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하는 방침과 정책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양안관계에 증대하고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양안은 정치적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양안 직통의 3통(통신·통상·통행)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였으며, 경제·금융·협력을 추진하는 등 일련의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는 양안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명시했다. 2008년 국방백서에서 양안관계가 중요한 긍정적 변화의 시기에 도달하였으며, 상호 협의를 개시하였다고 표현하였던 것에 비해 양안관계의 발전사항을 훨씬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 중국이 관대하고 평화적인 국가라는 외교적 인식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유화 및 협박을 함께 활용하는 강압적 포위전략(strategy of coercive envelopment)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⁴⁾ 2008년 국방백서는 대만의 분리 독립 움직임에 대한 위협을 전달하고자 하였지만 2010년 국방백서는 대만에 대한 분리정복 전략(divide and conquer strategy)을 구사하고 있다. 즉, 대만과의 관계 발전을 중시하고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만 독립 세력과 이들의 활동을 양안관계 평화적 발전의 최대 위협이자 장애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독립적 위상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중국과 경제정치적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대만의 현실적 접근 방법을 거부하고 있으며, 대만이 지금 중국과 정치적 협상을 시작하도록 요구하는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2010 국방백서는 양안의 통일에 대해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적 필연으로 규정하는 정치 슬로건적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만이 생각할 수 있는 양안관계의 발전을 위한 다른 형태의 접근방식을 거부하고 있다. 양안은 통일 달성이라는 목적 아래 이를 위한 여건

3) Richard Fisher, Jr, "2011 China Defense White Paper: Points of Concern," International Assessment and Strategy Center, http://www.stegycenter.net/printv/print_pub.asp?pubID=240

4) Ibid

을 창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안 간 협의는 아직 통일되지 못한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치관계를 실용적으로 협의해 볼 수 있으며, 군사안보 신뢰 메커니즘 구축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만 독립을 억제하고 반대하기 위한 정책을 중국 국방정책 목표 및 임무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국가의 주권 및 안전에 대한 문제로 명시하여 대만독립 추진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억제하고 반대하는 문제와 '東투르키스탄 독립' 및 '티베트 독립'을 분쇄하는 이슈를 거의 동일시하여 이들을 방지하고 타격하여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을 수호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비록 중국이 패권과 군사적 확장을 추구하지 않고 방어적 전략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대만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정책은 매우 공세적이며 위협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이 대만과의 관계에서 통일을 목적으로 한 긍정적인 협상에 대해서는 적극 임할 것이지만, 대만 독립과 관련된 사안에는 강력한 태도를 보일 것임을 나타낸다.

중국이 가장 중요한 대외적 안보위협 및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중국의 우려사항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10 국방백서는 아태지역 안보환경과 관련하여 미국이 지역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이 지역 안보문제에 대한 참여를 증대하고 있으며,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를 지속함으로써 마중관계와 양안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8 국방백서 역시 금융위기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발생하였고, 미국이 아태지역에 대해 전략적 관심과 참여를 증대하고 있으며, 대만에 무기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세 부분에 걸쳐 직접적 명시하였다. 또한 2010 국방백서는 많은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미국을 지칭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전 전략경쟁 및 군사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명시하여 마중 간의 경쟁관계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가 우주, 사이버 공간, 극지역, 지구적 신속타격수단의 개발, 미사일방어체계 개발의 가속화, 새로운 전략적 주도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미국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에 대한 외부의 의혹, 간섭, 대응 움직임이 증대하고 있다고 강조하여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2009, 2011 마중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합의한 내용인 "중국은 미국이 아태지역 국가로서 이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표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2010 국방백서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위협과 도전에 대해 외부적 요인뿐만 아

니라 내부적 요인을 증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적 안보 위협요인은 중국의 강대국 위상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본다. 중국은 대만독립, 東투르키스탄 및 티베트 분리주의를 중요한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적 안정을 위한 활동을 증시하고 있다. 2009년 이래 중국군 헌병은 24개의 중요한 폭력 및 범죄행동을 처리하였으며, 201개의 범죄 용의자 추적 작전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군의 내부 폭동 사건에 따른 군의 치안 참여활동이 이보다 훨씬 많으며, 중국이 통계를 축소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국내적 안정을 강대국 위상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해양관할권 분쟁의 경우 해양 권익에 대한 압박이 증대하고 있다고 간단히 명시하고 논쟁을 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반면 비전통적 위협에 대해서는 테러리즘, 에너지, 자원, 금융, 정보, 자연재해 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방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⁵⁾

다. 국방의 투명성 여전히 미흡 : 국방예산과 군사능력

미국과 서방세계는 중국 국방예산 및 군사력 현대화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투명성은 다른 국가들이 자신이 천명한 안보목표가 실제 군사능력과 국방정책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2010년 국방백서의 투명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방백서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범주별로 분석해 볼 경우, 2010 국방백서는 과거보다 오히려 투명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독트린과 임무에 대한 설명이 과거보다 미흡하며, 한반도 서해에서의 분쟁 및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분쟁 등을 담지 않고 있고, 군사능력.군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지휘구조 및 장비획득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매우 제한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국방백서는 군의 국제적 활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평화적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 2010 국방백서는 2008 국방백서와 달리 각 군의 군사능력 및 군 구조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군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준다. 미국은 중국의 국방백서가 의도만 전달하고 실질적인 능력을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국방백서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와 유사하며, 격년제로 발간을 정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투명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⁶⁾

5) Center for Naval Analysis, op.cit

6) Center for Naval Analysis, op.cit

중국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란 중 하나는 국방예산에 대한 것이다. 2010 국방백서는 2008년과 2009년의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17.5%, 18.5%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연간 국가재정지출 대비 국방비 점유 비율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6.68%, 6.49%로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2010년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국방백서에서 밝히고 있지 않다. 중국은 2010 중국 국방비 증가율을 7.5%로, 그리고 2011년 증가율을 12.7%로 공식 발표하였다. 즉,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2010년을 제외하고는 국방비 증가율이 매년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국방비는 2000년 279억 달러에서 2008년 601억 달러, 2010년 786억 달러, 2011년 91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중국 국방비는 2007년 일본을 추월하였고 2008년 영국을 추월하였으며, 미국 국방비인 6,60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이러한 막대한 국방비 규모를 고려하여 과거의 국방백서와 달리 이번 2010 국방백서는 일본 등 다른 주변국가와 중국의 국방비를 비교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국방예산과 관련하여 중국이 중요한 국방예산을 국방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군사력에 대한 미 국방부의 의회 연례보고서는 2009년 국방비가 중국 국방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755.6억 달러가 아니라 그 2배에 달하는 1,5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국방예산에 연구 개발비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항공모함 건조비용과 같은 구체적인 국방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⁷⁾ 2010 국방백서는 중국 국방비의 사용 항목을 병력유지비, 교육훈련비, 장비비로 구분하였으며 국방비 증가의 주요 원인을 부대 근무지원 조건의 개선, 다양한 국제적 군사임무의 수행, 첨단기술 무기장비의 구매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원가 상승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개발하고 확보하고 있는 많은 첨단무기 체계와 장비 등에 많은 국방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군사력 현대화를 통해 건설한 첨단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군사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국방백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많은 부정확성이 있으며, 용어의 실질적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게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0 국방백서는 중국 3개 함대에 해병대 여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남해함대에만 있

7) Robert Meginnis, "China Masking Huge Military Buildup," April 5, 2011, <http://www.china-defense-mashup.com/china-masking-huge-militar>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예비군(Reserve force) 훈련과 관련하여 2008 국방백서는 예비군의 1/3이 30일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2010 국방백서는 예비군 장병은 연간 240시간의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예비군과 관련된 국방예산이 30%밖에 증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2008년에 비해 3배 규모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혹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과의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국방백서는 2010년 9월 중국-파키스탄 공군 간 훈련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중국공군은 Su-27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들이 참여하여 이란 공역을 통과하였고 공중급유 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이 명시하고 있는 근해 또는 원해(offshore와 distant waters)의 개념, 그리고 훈련 강화와 관련하여 "상부조직이 하부조직을 이끌고, 전라훈련이 전역훈련을 통솔하며..." 등과 같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⁸⁾

라. 중요한 목적은 국제사회를 안심시키는 것(Reassurance)

2010 국방백서는 중국이 책임을 다하는 강대국(responsible engaging power or responsible major power), 중국군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군대(recipient expeditionary force)로서 국제사회를 안심시키기 위한 설명에 중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⁹⁾ 이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에서 보다 명확히 보이고 있다. 첫째, 중국이 안정과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며, 외국에 대한 침략을 하지 않는다. 평화에 대한 강조는 중국과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만 및 지역국가와의 관계 등에서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태세에 있어서 공세적 정책이 아닌 방어적 태세를 지속, 견지하고 있으며 국방의 목표는 평화적 발전과 조화로운 세계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중국이 오랫동안 표방하고 있는 평화공존 5원칙을 기반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중국의 이미지를 역사적인 평화주의 전통과 결부시키고 있다. 중국은 국방목표를 국가 이익의 수호 및 군 현대화 이외에도 사회의 조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2008 국방백서에서 국방정책 목표를 주로 군사적인 사항만 제시하던 것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8) Center for Naval Analysis, op.cit,

9) Center for Naval Analysis, op.cit

2010 국방백서와 관련하여 PLA의 대외협력실 책임자(the Director of PLA's Foreign Affairs Office)는 국방백서가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주로 평화의 메시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해방군보(Liberation Army Daily)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백서가 강조하고 있는 6개 우선사항으로 1) 대만과의 군사적 신뢰구축, 2) 평시 군사임무를 다양화하기 위해 7대 분야에 대한 군사력 운용, 3)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추진해온 군사력 현대화, 4) 합동작전, 5) 군 사법제, 6) 군사적 상호 신뢰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군사력 현대화와 합동작전을 제외하고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평화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을 보다 합법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대변하고 있다.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 이외에도 군사법제의 개정 및 수정을 통해 제도적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른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하고 있다.¹⁰⁾

둘째, 국방백서는 미국 및 주변국 등과의 갈등 부분, 또는 논쟁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있거나 최소화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미국이 사이버 및 우주 공간, 미사일 방어정책 등에 대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려와 경쟁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중국 자신의 우주 및 사이버 정책, 미사일 방어체계 능력 강화 등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주요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 대비하고 있으며, 타국으로부터의 컴퓨터 사보타지를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전통적 군사수단으로 대응할 것으로 결정하였다.¹¹⁾ 미국은 중국을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주요한 원점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주공간에 대해서도 중국은 대위성요격미사일(ASAT)을 발사하여 안보적 우려를 야기하였으며, 우주전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단계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10년 1월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ABM)을 실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국방백서는 2010년 동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안보적 이슈였던 해양분쟁, 그리고 중국의 인도양 진출 노력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기술하지 않고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중국은 한미의 서해 연합훈련에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대응 군사훈련을 실시하였

10) Representative Randy Forbes Reed Eckhold, "China's Defense White Paper,"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pril 5, 2011, www.crs.ϑ

11) Siobhan Gorman and Julian E. Barnes, "Cyber Combat: Act of War," The Wall Street Journal, May 31, 2011, http://conline.wsj.com/articles/SB10001424052702304563310457635562

다. 2010년 9월 센카쿠열도 근해에서 중국 어선 나포사건과 관련하여 일본과 동중국해 해양관할권 문제로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과 남중국해 자원 개발문제로 마중, 중국과 동남아 간 갈등을 빚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2010년 7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중국해 분쟁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국가적 이해를 갖고 있다고 발표하자, 중국 외교부장은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의 주권 및 영토보존과 관련된 핵심적 이익이라고 공식 통보하는 등 긴장관계가 조성되었다. 또한 중국은 인도양 지역 국가들에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이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하여 해양 작전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2010 국방백서는 이러한 주요 이슈를 담고 있지 않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 이란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에 의한 해결방법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재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란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0 국방백서는 북한의 2009년 2차 핵실험과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시리아 등에 대한 확산 의심 행동과 같은 문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란 문제 역시 국제사회의 요구와 압박에도 이란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지속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중국의 파키스탄에 대한 WMD 기술이전과 같은 확산 의혹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지 않고 있다.

셋째, 중국군의 평화적·건설적 역할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중국군의 역할과 기여를 부각하고 있으며, 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2010 국방백서에서 군사력의 운용과 관련된 7대 임무로서 중국군의 평화적, 건설적 사용을 중점 강조하고 있다. 국방백서에는 중국군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임무로서 국경-해안-공중 안보 방위, 사회안정 유지, 국가 건설 및 긴급구조재난구호 참가, 유엔평화유지활동 참가, 아덴만소말리아 해역 호송 임무, 외국군과의 연합 군사연습 및 훈련, 국제 재난구조 작전 참여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 해공군이 리비아에서 중국인들을 구조하고 철수시켰던 첫 해외 군사임무 수행에 대한 사실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군의 해외원정작전과 같은 임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식시키고, 평시에도 다양한 건설적, 평화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0 국방백서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나아가 2010 국방백서에서 중국이 평등하고 상호 이익을 주는 효과적인 군사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중국은 러시아, 미국, 주변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협상과 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경지역의 안정을 위한 '국경신뢰구

축조'를 취하고 있고, 해양안보 대화 및 협력, 지역 안보협력, 대외 군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1997년 이래 국방부간 협상을 지속해 왔으며, 1998년 군사해양안보협약(MMCA)을 체결하고 해양활동의 안전에 기여하고 우발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문제들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즉, 중국군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신뢰를 증대하고 협력관계를 확대하여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안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국제해양법 등을 준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핵군축, 확산방지, 화학생물무기 금지, 재래식 무기 통제등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 군사력 임무의 확대 및 현대화 노력의 가속화

미국은 중국의 2010 국방백서가 안보전략 및 국방정책의 목표와 의도만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인 군사능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양안사태 발생 시 중국의 지역거부/접근거부(area denial/anti-access) 전략 및 이와 관련한 능력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영해 12마일을 넘어서 배타적 경제수역인 연안에서 200마일까지의 해역에 대해 자신의 주권적 관할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미국과 많은 국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연안에 대한 접근, 항해의 자유, 공해상에서의 비행의 자유를 주장하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갖추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2010 국방백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미국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대함탄도미사일(ASBM), 위성 등 우주배치 ISR 능력, 탄도미사일요격체계 및 대위성 요격체계(ABM/ASAT), J-20 첨단 스텔스 전투기, 전략 및 기타 잠수함, 항모 건조 계획, 원거리 작전을 위한 공중급유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지 공격용 순항 미사일, 대만을 위협할 수 있는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나 백서에는 언급이 없다. 중국은 최근 처음으로 대함탄도미사일 DF-21D를 작전에 배치하였으며, 사정거리 1,000km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DF-16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대만을 겨냥하여 1,300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DF-11/15S를 배치하고 있으며, 이를 고속 중거리 미사일로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¹²⁾ 또한 이미 언급하였듯이 근해 방어전략의

12) Gabe Collins, "Grading China's Military Plans," April 9, 2011, <http://www.china-defense-mash.com>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2009년 남중국해 해역 인근에서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전략공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전문가들이 중국의 군사력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정보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백서는 중국군의 발전계획과 현대화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중국군의 임무가 1) 국가 경제 및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고, 2) 중국의 지상 및 해양 영토를 방위하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 이익을 지원하며, 3)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여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도록 한다. 이러한 임무는 2004년 후진타오 주석이 제시한 새로운 역사적 임무를 반영하고 있으며, 중국군의 정치적 업무가 본질적으로 당의 리더십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백서는 당국과 체제를 분명히 하여 군이 당의 영도와 지도하에 움직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거의 양과 규모, 인력 중심에서 질과 효율성, 기술에 중점을 두도록 변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의 압도적 규모에 의한 군사력 운용 이미지를 벗어버리고자 하고 있다.¹³⁾

또한 2010 국방백서는 중국군이 기동작전과 3차원 공방작전을 위한 전략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육군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전개하고 원거리 기동 및 통합 공격 능력을 촉진하러 한다. 특히, 전투 공병과 육군 항공 능력을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해군은 전략적 억제능력, 원해작전에 중점을 두고 능력을 발전시키며, 공군은 공중방위 역할을 북경 방위에서 전자기 영역을 포함하여 연안 및 국경지역에서 공중우세를 구축하는 것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제2포병은 핵 및 재래식 미사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해군과 같이 전략적 억제임무를 확대하고 있다. 제2포병의 일부 책임을 방위작전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⁴⁾ 육해공군은 재난구조 및 대해적 작전과 같이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이외의 작전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또한 중국군의 현대화는 무기 및 지휘통제체계의 개선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군은 정보화 능력의 개선과 합동작전 능력을 증진하고, 훈련 및 인력 충원을 개선하며, 군수 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등 군사력 전체의 현대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3) Dean Cheng, "The Limits of Transparency: China Releases 2010 Defense White Paper," April 7, 2011, The Heritage Foundation, <http://report.heritage.org/wm3215>

14) Ibid

정보화 능력 및 합동작전 능력은 중국이 첨단 기술중심의 미래 작전 임무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능력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군사혁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고 있으나 아직도 발전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2000년대 초부터 중국 특색의 군사 변혁을 위해 정보화와 기계화를 중점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이는 중국군을 기술중심의 새로운 능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0 국방백서는 중국군이 모든 면에서 정보화 능력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중국군은 광섬유 통신 기반을 건설하고, 정찰감시, 지휘통제, 진장환경 인식 능력이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정보체계를 군수 및 장비 지원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휘통제 체계와 전투 및 지원체계 사이에 상호 운용성이 증대되고, 명령전송정보분배지휘전달이 더욱 빨라졌고 효과가 높아졌다. 이러한 정보능력은 우주기반 정보 아키텍처의 급속한 성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합동작전은 정보화 조건하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군사력 현대화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군은 합동작전에 관한 작전이론, 작전능력 건설, 지휘체계 개선, 통합지원 능력을 제고하는 등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상해상공중 기동부대를 구성하고 각 군의 변혁을 추진하며, 편조형(모듈러) 임무와 합동작전을 증대하여 보다 유연하고 다기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중국은 합동작전 능력을 20년 이상 추구하여 왔으며, 이러한 능력의 새로운 도약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합동작전 능력은 정보체계, 타격체계, 군수지원 체계, 장병의 능력 등이 효과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용될 경우에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군의 경우 아직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협력기구의 2010년 평화사명에 육군과 공군의 합동전력을 참여시켰다는 것은 합동작전 능력의 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훈련에서 중국군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처음으로 중국기지에서 출격하여 외국의 전투훈련에 참여하였다.

기술중심의 군사력과 합동작전 능력의 강화, 군사임무의 확대와 관련하여 중국은 연습훈련, 군수지원 능력, 우수인력의 충원 및 유지를 복합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010 국방백서는 중국군이 지휘부 지휘 훈련을 보강하고, 정보화 및 전자공간과 관련한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쟁이외의 작전 등에 대한 훈련을 전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군사훈련 방식도 편조훈련, 복잡한 환경에서의 훈련 등 실천적 요구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군수지원 능력은 원해작전을 수행하고 국제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현대적인 군수지원 능력을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군은 합동작전, 국제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수준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핵심적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성과 과학성을 갖춘 간부 및 부사관, 합동작전 등을 위한 우수 인력을 선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0 국방백서는 중국군의 현대화에 대한 단계적 발전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10년 국방백서는 중국군이 3단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기계화를 기초로 정보화를 주도로 하는 전략적 도약,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기계화를 실현하고 동시에 정보화 건설의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8년 국방백서는 중국군이 중국특색의 군사혁신을 추구하며 2010년까지 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2020년까지 기계화를 완성하고 정보의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며, 21세기 중반까지 현대화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2010 국방백서는 2010년까지 중국군이 군사혁신의 성과와 현대화의 목표 기한인 21세기 중반까지의 과업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군의 장기적 현대화 계획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추측을 야기하고 있다.

바. 접근 거부 및 전력투사 능력과 전략적 능력

미국은 중국의 접근거부/지역거부 능력의 강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우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중국군의 군사력 현대화는 유사시 미군 개입을 거부하기 위한 능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이 접근거부 능력의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무기체계와 장비는 대함탄도미사일, 재래식 및 핵추진 공격 잠수함, 첨단 수상함정, 해양타격공중전력, 전자전 및 대위성요격능력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합동작전 능력이 이러한 전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합동작전능력은 중국군이 미사일, 공중, 잠수함 전력을 협조적,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미 해군전력과 군사기지를 공격하여 미군의 대만지원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미국은 2010 국방백서가 이러한 미국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주요 전력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접근거부 능력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양안 군사력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대함탄도미사일인 DF-21D가 조만간 작전에 운영될 경우 항모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F-21D는 DF-21C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서 사정거리 1,500km, 또는 탄두 중량에 따라 약 4,000km 거리에 있는 항모와 같은 수상 이동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서, 미 태평양사령관 윌러드(Robert F. Willard) 제독은 중국이 최초 작전 능력(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를 갖추었으며, 이를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DF-21D와 같은 대함탄도미사일이 실제 배치되어 운용될 경우 미 항모세력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여 작전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는 해상에서 게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중국의 소브레니급 및 루양급 수상함, 그리고 킬로급/송급/위안급/상급 잠수함은 대함 순항미사일을 탑재하여 중장거리에서 수상함정을 공격할 수 있다. 또한 FB-7, FB-7A, SU-30 MK2와 같은 해상작전 전투기들 역시 미사일들을 활용하여 해상작전 세력을 위협할 수 있다. 중국은 대규모 수상함 및 잠수함, 항공기 전력을 활용하여 미사일전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이는 미 해군세력의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다. 비록 미 해군세력이 대함미사일 방어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 공격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중국은 대규모 대지공격용 탄도미사일을 활용하여 아시아 미군기지과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 대함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첨단 탄도미사일 공격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며, 대만과 미군의 방어체계를 무력화하고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J-20와 같은 새로운 첨단 스텔스 첨단 전투기의 개발, 러시아 도입 및 중국 자체 개발의 대공방어 및 미사일 방어체계는 중국군이 미군의 압도적 공군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J-20의 경우 아직 미국의 F-22랩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예상하지만 지속적으로 성능이 향상될 것이며, 미군의 공중전력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중국은 약 600대의 4세대 전투기와 4+세대의 전투기에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하여 운용함으로써 대만 공격을 위한 작전에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련에서 도입한 SA-10, SA-20 PMU1/PMU2 대공 및 대미사일 요격체계와 중국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배치하고 있는 HQ-9 장거리 대공 및 미사일 요격체계는 중국의 방위능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전자전 능력, 사이버 공격 능력, 그리고 대위성 요격 능력 등은 미국의 네트워크 중심전에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작전은 위성

에 기반을 둔 C4ISR 체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대위성 요격 체계에 의해 미국의 우주기반 C4ISR 체계의 효과적인 운용을 거부하고 차단할 경우 미국의 군사작전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전자전 능력 역시 정밀유도무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타격작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사이버 공격능력은 전략적 목적에서부터 전술적 목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전통적 수단의 전쟁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위협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전력투사 능력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나 중국 해군의 국제적인 임무 수행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중국은 근해방어전략, 원해작전 능력을 추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능력은 국방백서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 해군은 수상함의 경우 약 70~80척의 대형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현대적 함정은 15~18척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상륙작전 역시 대만에 대해 1~2개 사단 (10,000~20,000명)정도의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대규모 상선단을 운용하여 추가적으로 5~7개 사단 병력을 운송할 수도 있다. 공중 수송능력 역시 IL-76 약 20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약 80대의 대형 민항 수송기를 동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송능력 자체는 대만작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수행하고 있는 소말리아 연안의 대해적 작전, 재난구조 등을 통해 전력투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비록 중국이 중국군의 국제적 임무를 평화적 목적의 임무로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전력투사 능력을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측면이 많다. 2010 국방백서는 중국 해군이 병원선, 헬기, 수상지원함 등의 건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수지원 능력은 장기간 원해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중국군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2010 국방백서는 전략적 수송능력, 전략적 전력투사 지원능력, 긴급 수송 및 수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군이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첨단 수상함정과 공군의 전략적 작전 능력, 공중 급유능력, 정밀타격 능력 등은 전력투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전력투사 능력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중국의 항모 건조계획이다. 2010 국방백서는 항모를 포함하여 중국군의 함정, 항공기 등의 획득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 환주시보는 6월 8일 천빙더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홍콩 상바오(商報)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치첸궈 총참모장 조리도 “항공모함을 보유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은 방어용으로

구축하고 있는 항공모함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였다.¹⁵⁾ 이는 중국이 항공모함을 조만간 보유할 것임을 말해준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6만톤급 바라크호를 개장하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항모를 건조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항모용 고정익 조종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러시아의 Su-33을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중국은 항모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기에는 훈련 및 국제적인 평화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고, 점차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의 전력투사 능력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해외 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와 같이 중국연안에서 남중국해, 말라카해협, 인도양, 아라비아해 및 걸프해역으로 통하는 중국의 해상교통로 상에 항구 사용권을 확보하여 기지로서 활용하고자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파르셀군도의 우디(Woody) 섬, 방글라데시의 치타공(Chittagong)항, 미얀마의 시트웨(Sittwe), 파키스탄의 과다르(Gwadar)항에 대한 항만시설 투자를 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경제발전의 핵심적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말라카해협을 비롯하여 주요 해상교통로를 미해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과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전력투사 능력이 대만문제, 남중국해 분쟁 등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에 잠재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마려간의 군축협상과 관계없이 자신의 핵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사정거리 8,000km의 ICBM인 DF-31실전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동형 다탄두 MIRV인 DF-31A와 사정거리 12,000km의 DF-41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Jin급 전략핵잠수함을 진수시키고 여기에 사정거리 7,200km의 JL-2 전략핵탄도 미사일을 적재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대만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DF-16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언급하였던 대함 탄도미사일인 DF-21D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능력은 대만 해협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억제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의 2010 '핵태세검토보고서'(NPR)은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전략적 안정을 추진

15) 한국일보, "중군 수뇌부 항공모함 건조사실 첫 확인, 10월 1일 진수 가능 주목," 2011년 6월 8일, <http://news.naver.com/main/tool/print.nhn?oid=038&aid=2157201>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¹⁶⁾ 이는 중국의 전략적 억제능력의 강화에 따라 미중 간 전략적 억제능력이 구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결론

미국은 2010년 중국의 국방백서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중국이 국방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국방백서가 대내외적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의 국방백서는 이미 7차례에 걸쳐 매 2년 간격으로 발간되고 있다. 최초 발간 당시에 비해 내용이 많이 추가되었지만 중국군의 군사능력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단지 중국 국방의 목표와 의도, 그리고 군사적 지향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공식문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이 요구하고 있는 국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용들은 여전히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이는 국방백서가 외국을 상대로 할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중국 국민과 군, 관료 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당국가(party state) 체제의 성격을 반영한 문서로서 투명성을 보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2010 국방백서는 대내외적 안보환경을 중국에 우호적이고 기회적인 상황으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중국의 평화적, 건설적 역할과 이미지를 확신시켜주고자 하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체제가 비록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중국에 유리한 전략환경이 전개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도 경쟁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만과의 관계도 분리독립 세력을 고립시키고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정치전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및 주변국가들의 중국 위협론, 중국의 행동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 촉구 등에 대해 중국은 국방백서를 통해 중국군이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매우 협조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군이 기여를 증대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침략정책을 추구하고 있지 않음을 알리고자 한다.

비록 국방백서는 중국군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이 군의 현대화를 달성하여 강대국 군사능력을 확보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중국의 국방전략은

16) US Defense Department,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April 2010, p.vi

영토방위 전략에서 이미 원해작전, 주요 해양분쟁 등에 대한 이익 보호를 위한 작전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군의 현대화 방향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첨단 정보기술 능력을 기반으로 합동성·통합성을 강화하고 작전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는 국가마다 여건에 많은 차이가 있다. 중국 국방백서는 중국군의 장비와 무기체계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훈련, 군수, 인력 등 전 분야에 있어 발전을 추진함으로 기술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함을 말해준다.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군사적 도전에 대해 사실상 우려와 관심을 갖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P

참고자료

2010 중국 국방백서 요약본

서 언

- 중국은 국제사회와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는 운명체적 관계이며, 스스로의 평화적 발전을 통해 영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조화세계(和諧世界)를 적극적으로 건설하였다.
- 중국은 독립자주의 평화·외교정책과 방어적 국방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함께 계획하여 전면적 소강사회(小康 社會)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국과 강군을 실현할 것이다.

제1장 안보정세

- 세계는 전반적으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기본 형세를 유지하고 있다.
 -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공동의 도전이 증가되고 있어 소통, 협조, 협력은 대국관계의 주류가 되었다.
 - 평화를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요소들이 부단히 증가하고 있어 인류의 미래 운명은 전반적으로 밝다.
- (그러나) 국제 안보정세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 전통과 비전통 안보문제가 교차하고, 국내와 국제 안보문제가 상호작용을 하여 전통적 안보 개념과 매커니즘으로는 현재 세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보위협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 국제 군사경쟁이 여전히 치열하다.
 - 주요 국가들은 군사개혁을 가속화하며, 군사 첨단 신기술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17) '소강' 은 중국사회의 발전단계에서 '따뜻하고 배부르다' 는 뜻의 '온포' 다음 단계를 말함. '소강' 은 문화적 여유까지 가미한 중산층 생활을 뜻함.

-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강군의 기세를 유지하면서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 아시아 각국은 다자주의와 개방적 지역주의를 견지하면서 역내의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협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 지역 특색을 갖춘 경제·안보 협력 매커니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 아태지역 안보의 복잡성과 다변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추세에 있다.
 - 한반도 정세는 수시로 긴장되고, 아프가니스탄 안보정세는 여전히 심각하다.
 - 미국은 아태지역의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안보문제에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 중국은 여전히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기회기에 있으며, 안보환경은 전체적으로 유리하다.
 - 중국은 적극적으로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수호하여 종합국력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였다.
 - 법세계적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양안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은 양안동포의 이익과 염원에 부합하며, 국제사회에서 환영을받고 있다.
- 중국이 직면한 안보적 도전은 더욱 다원화되고 복잡해졌다.
 - 중국은 광활한 국토와 해역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임무는 대단히 어렵고 막중하다.
 - 양안관계의 발전은 아직도 많은 복잡한 요소들의 제약을 받고 있다.
 - 국가의 영토주권과 해양주권을 수호하는데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 미국은 미·중관계와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심각히 손상시키고 있다.
- 중국은 평화, 발전, 협력의 기치아래 세계 각국과 함께 평화·안정, 평등·상호신뢰 및 협력·공영하는 국제안보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제2장 국방정책

- 중국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시행한다.
 - 중국의 발전 노선, 근본 임무, 대외 정책 및 역사·문화·전통은 중국이 필연적으로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시행토록 한다.
 - 중국은 대내적으로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대외적으로 영구평화와 공동번영의 조화 세계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이용해 국가를 발전시키면서 또한 중국의 발전을 통해 세계평

화를 수호한다.

-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독립자주의 평화외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와 우호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 중국은 전통적 평화 이념을 계승하고 있으며, 비군사적 수단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전쟁에 대처 할 것을 주장한다.
- 전략적으로 적의 선제공격을 받은 다음에 적을 공격하여 제압하는 후발제인(後發制人)¹⁸⁾을 주장한다.
-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적 확장을 영원히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 양안의 통일은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의 필연이다.
 - 양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기초로 하여 적대 상태의 공식적인 종식에 관해 협상하고, 평화적인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 신시기¹⁹⁾ 중국 국방의 목표와 임무
 -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
 -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
 - 국방 및 현대화를 추진
 -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

제3장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건설

1. 군 현대화 발전 과정

- 신중국²⁰⁾ 건립 이후 인민해방군은 우수한 현대화 혁명군대 건설의 총방침과 총임무를 수립하였다.
- 개혁개방의 역사적 조건 하에서 인민해방군은 중국특색의 정병의 길로 나아갔다.
- 중국특색의 군사변혁(RMA)²¹⁾의 추진을 시행하였으며, 양적 규모형에서 질적 효율형으로, 인력 집약형에서 과학기술 집약형으로의 전환을 점차 실현하였다.
- 정보화를 위주로 한 기계화 정보화의 복합 발전을 강화하고, 정보체계에 기반을 둔 체계작전 능력을 제고 하였다.

18) “attacking only after being attacked”

19) 중국에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를 가리킴

20)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의 중국을 가리킴

21)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2. 육군, 해군, 공군 및 제2포병 건설

- 육군은 기동작전 및 입체공방의 전략 요구에 따라 개혁, 혁신, 건설의 강도를 증가하였고, 부대 전체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 육군의 기동작전부대는 18개 집단군(사단, 여단으로 편성)과 일부 독립된 합동작전 사단을 포함한다.
- 육군의 병종 건설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 장갑병: 디지털부대 건설 강화, 차량화부대에서 기계화부대로의 전환을 가속화.
 - 포병: 정찰, 통제, 타격, 평가가 일체화된 정밀작전 능력을 갖추었다
 - 방공병: 신형의 유도탄과 대공포가 결합된 화력차단 체계를 형성
 - 육군항공병: 지원보장형에서 주력 돌격형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
 - 공정병: 신형 작전보장능력 건설을 가속화
 - 방화병(화학): 핵·생화학 방호 일체화 건설을 적극 추진
- 해군은 근해방어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종합작전 역량의 현대화 수준 향상에 주력하였고, 원해에서의 협력과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발전시켰다.
 - 해군 예하에는 북해, 동해, 남해의 3개 함대가 있다.
- 공군은 공방겸비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계획에 의거하여 현대화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공중공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전략투사를 중점으로 하는 작전 역량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있다.
 - 수도를 중심으로 하고 국경과 연해 일선을 중점으로 하는 일상적인 방공전비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 조기경보기, 제3세대 작전 항공기 등 선진 무기장비를 계속해서 편제화하고 있다.
 - 공군 예하에는 7개 군구공군과 1개 공수군단이 있다.
- 제2포병은 정예·효과의 원칙에 따라 부대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 전략유도탄 부대만의 특징이 있는 군사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복잡한 전자환경하에서의 대항훈련을 심화하고 있다.
 - 제2포병은 이미 핵 및 재래식 무기를 겸비한 전략 역량으로 성장하였다.

3. 정보화 건설 가속화

- 인민해방군은 정보화 건설과 정보화 전쟁 승리의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놓고,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국방통신 광섬유 네트워크의 총 길이는 대폭 증가하였으며, 신세대 정보전송 네트

워크를 건설하고 있다.

- 정보화 건설의 전략계획과 지휘관리가 강화되었고, 정보화 지식을 보급하고 기능 교육 훈련을 전개하였다.

4. 합동작전체계 구축

- 작전이론 연구를 심화하고 있다.
- 작전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있다.
- 작전지휘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 종합지원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5. 군사훈련 전환 추진

- 인민해방군은 훈련개혁을 전면심화하여 기계화 조건 하 군사훈련에서 정보화 조건 하에 군사훈련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군사훈련 내용을 개혁하고 있다.
 - 지휘부 지휘훈련을 보강하며, 지휘정보체계 및 정보화 무기장비 조작 훈련을 강화하고, 정보화 지식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군사훈련 방식과 방법을 혁신하고 있다.
 - 다차원적인 훈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 실전적 요구에 따라 전시편성 및 작전절차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군사훈련 수단을 개선하고 있다.
 - 합동전술훈련 기지의 정보화 발전을 가속화하고, 시뮬레이션 훈련 장비와 체계를 발전시키고, 군사훈련 정보망을 개선하고 있다.
- 훈련관리 개혁을 심화하고 있다.
 - 군사훈련 전 과정과 전 요소에 대한 세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6. 정치공작 혁신

- 인민해방군은 정신 혁신으로 정치공작을 추진하며, 정치공작으로 새로운 정세에 부응하고 새로운 발전을 실현하고 있다.
- 사상교육, 여론유도, 문화계발 등의 방법을 통해, 당대 혁명군인의 핵심가치를 함양하고 있다.
- 5년 내에 여단·연대급 부대에 적어도 1명의 심리 전문 군의관을 배치하고, 중대급 부대에 3명 이상의 심리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인재전략공정 시행

- 간부 정책·제도의 조정과 개혁을 심화하고 있다.
- 합동작전 지휘 인재 및 고급 과학기술 혁신 인재의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 부서관 선발·양성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8. 전면적인 현대 군수 건설

- 군수지원 및 각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고 있다.
- 중대한 임무 수행을 위한 군수지원을 세밀하게 조직하고 있다.
- 부대의 보급지원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9. 첨단 신기술 무기장비 건설 강화

- 무기장비의 질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 장비 관리 수준과 유지보수 및 지원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 무기장비의 미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제4장 무장역량 운용

1. 국경·해안공중 안보 보위

- 중국의 국경 및 해안방어는 군민 분담 책임의 방위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 공안변방부대는 주로 국경·연해지역 및 해상의 치안관리와 범죄행위에 대한 방비 및 척결을 책임지고 있다.
- 국가는 변해방위위원회를 설립하고 전국 국경·해안방어 업무의 협조를 책임지고 있다.
- 인민해방군 변해방부대는 각종 침입, 병탄, 월경, 침투·파괴활동을 엄격히 방비하고, 국경·연해지역과 관할해역의 안전과 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있다.
- 2009년 이후 총 3만 7천 건의 각종 범죄를 적발하여 체포하였고, 불법 총기 3,845정을 압수하였다.
- 인민해방군 공군은 국가 공중 안보의 주체 역량이며, 육군, 해군, 무장경찰부대는 부분적으로 방공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사회안정 유지

- 중국의 무장역량은 사회질서 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무장경찰부대는 국가의 공공 돌발사건을 처리하는 중추이자 돌격역량이다.

3. 국가건설 및 긴급구조·재난구호 참가

-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는 서부대개발 참여와 지원을 중점으로 하는 국가건설 지원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최근 2년간 총 투입 노동일수: 1,600여 만 일
- 기계·차량 동원: 130만 대
- 기초시설 중점 건설사업 참가: 600여 항목
- 소형공공사업 지원: 8,000여 건
- 서부지역 부대의 식수: 1,100만 그루
- 중국무장역량은 긴급구조·재난구호의 돌격역량이다.
- 8개 국가급 응급전문전력을 조직. 병력 규모는 5만 명
- 최근 2년 간, 174만 2천명을 구조 또는 소개. 물자 30만 3천톤 긴급수송. 수로 3,742km준설. 심정 4,443개 개설. 제방 728km 보강. 생활용수 50만 4천톤 운반

4.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가

- 1990년 중동평화유지임무지역(UNTSO)에 5명의 군사감시단 파견
- 1992년 유엔 캄보디아평화유지임무지역(UNTAC)에 400명의 공병대대 파견
- 2001년 국방부 평화유지업무 사무소 설립
- 2002년 유엔 1급평화유지 명령대기체제에 가입
- 2009년 국방부 평화유지센터 설립
- 2010년 12월까지19개 항목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
- 장병 1,955명이 9개의 유엔 임무지역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5. 아덴만·소말리아 해역 호송임무

- 2008년 12월 26일 해군 함정편대를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하여 호송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중국은 선박 호송임무 국제협력 강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6. 대외 연합연습 및 훈련

- 인민해방군의 외국군과의 연합연습 및 훈련은 '동맹을 결성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고,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방침과 전략적 호혜, 평등한 참여, 대등한 실시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 2010년 12월까지 외국군과 44차례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실시하였다.
- 상하이협력기구(SCO)틀 내에서 연합 대테러 군사연습은 체계화로의 발전을 나타내고 있다.
- 해상 연합연습의 상시화를 실현하였다.
 - 2003년 파키스탄과 해상탐색구조연습을 거행
 - 2007년, 2009년, 중국 해군 함정은 파키스탄 해군이 주최하는 다자간 해상 연합 군사연습에 참가.
 - 2010년 태국과 최초로 외국군과의 해병대 연합훈련을 거행
- 육상 연합훈련을 광범위하게 전개
 - 2007년 태국과 최초로 육군 연합훈련을 거행.
 - 2009년 최초로 의무지원 분대를 아프리카에 파견, 가봉과 의무지원 연합작전을 거행
 - 2010년 의료부대를 페루에 파견, 인도주의적 의료구호 연합활동을 전개

7. 국제 재난구호

- 최근 중국 무장역량은 중국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재해 국가에 구호물자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국제 재난구호작전에 참가하였다.
-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 구호물자를 제공한 이래 인민해방군은 28차례에 걸쳐 국제 긴급 인도주의 원조임무를 수행하였고, 22개 재해 국가에 9.5억 위안 상당의 구호물자를 제공하였다.

제5장 국방동원과 예비역량 건설

1. 국방동원 조직·지휘 체제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국 총동원 또는 부분 동원을 결정한다.
- 국가주석은 동원령을 선포한다.
-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동등으로 전국 국방동원 업무를 지휘하며, 국방동원의 시행을 조직한다.
-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국방동원을 시행한다.

2. 국방동원능력 건설

- 인민무장동원 건설은 새로운 진전을 보였다.
 - 전시 부대동원계획과 지원계획을 완비하고, 현역부대의 예비역 편제 완편 충원업

- 무를 추진하여 예비역부대 건설을 강화하였다.
- 국민경제동원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중요 기술 및 생산품에 군민점용의 정도를 부단히 증가시키고 있다.
 - 국민경제동원 건설의 기초를 기본적으로 확립하였고, 전략물자 비축 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하였다.
- 인민방공 건설의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있다.
 - 정보화 조건 하 공중기습 방어 투쟁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 인민방공과 도시 건설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 국방교통원 건설을 건설하고 질서정연하게 추진하고 있다.
 - 전략 교통로 지원능력, 전략 투사 지원능력, 교통 긴급 수송, 수리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3. 예비역 부대 건설

- 예비역 부대는 현역 군인을 중추로 하고 예비역 장병을 기초로 하여 군대의 통일된 체제·편제에 따라 구성된 무장역량이다.
- 예비역 장병은 일반적으로 매년 240시간의 군정훈련을 받는다.
- 예비역 부대 건설의 목표: 평시 긴급사태 및 전시 전쟁 대응능력 향상
 - 양적 규모형에서 질적 효능형으로, 직접 작전 참여에서 작전지원 위주로, 일반병력 충원에서 기술병력 충원 위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4. 민병 건설

- 기간민병은 현재 전국에 800만 명이 있다.
- 국경·해안방어 작전부대와 군병종 근무지원부대 및 응급부대 건설을 중점 강화하고 있다.
- 민병의 평시 긴급사태 및 전시 전쟁 대응능력이 명확하게 증강되었다.
- 매년 민병 9만여 명이 교량, 터널, 철도 보호활동에, 200여만명이 군·경·민 합동순찰 작전에, 90여만 명이 중대한 자연재해 긴급구조·재해구조 활동에, 약 200만명이 도농 사회치안 및 종합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제6장 군사법제

1. 군사법규체계 건설

- 중요 군사 법률과 법규를 제정·수정하고 있다.

-2010년 12월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국방·군사 관련 법률과 법률문제에 관한 결정은 17건,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합동으로 제정한 군사행정법규는 97건, 중앙군사위원회가 제정한 군사법규는 224건, 각 총부, 군병종, 군구 및 무장 경찰부대가 제정한 군사규정은 3,000여건이다.

□ 군사법률·법규·규정을 정리하여 집대성하는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2008년 말 이전에 반포한 현행 군사법규 921건, 군사규정 7,984건을 정리하였다.

-군사법규 65건, 군사규정 1,214건을 폐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군사법규 총집(2004-2008)』, 『중화인민해방군 군사규정 총집(2004-2008)』, 『중화인민무장경찰부대 군사규정 총집(2004-2008)』을 편집, 출판하였다.

2. 법률·법규 시행

□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는 의법용병, 의법행동을 견지하고 있다.

□ 새롭게 수정된 공동조령을 관철,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공동조령은 교육훈련과 각종 양성훈련 및 점검, 평가에 포함시켜 학습하고 있다.

-군대의 군사훈련, 장비구매, 기율검사·감찰, 회계감사 등은 법률·법규에 규정된 직무 권한에 의거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법 집행 및 점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군사사법

□ 군대 정법(정치·법률) 업무에 대한 당의 조직과 영도를 견지, 강화하고, 군사사법 업무체계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

□ 예방 위주, 종합 관리, 건설 중시의 방침을 관철하고, 범죄예방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국가 사법개혁의 전체적인 안배에 따라 군사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4. 법률 서비스와 법제 선전 교육

□ 군대 각급 사법행정 부문과 유관 부문은 다양한 군사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요구에 의거하여 적시에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예하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전개하고 있다.

□ 법률 서비스 인원을 확대하고, 법률 서비스 조직을 보강하고 있다.

□ 군대 권익수호 체계를 완벽히 하고, 국방이익과 군인 및 군속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있다.

□ 제5차 5개년 법률보급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법제선전 교육을 심도 있게 전개하였으며, 장병의 법률 수준을 제고하였다.

제7장 국방과학기술공업

1. 국방과학기술공업의 개혁과 발전

□ 군수공업의 발전 방식을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 군수기업의 민간공업 능력 이용 및 사회자본의 무기장비 연구생산으로의 투자를 규정하고 인도하고 있다.

-현재 무기장비 연구생산 허가를 획득한 민간기업은 인가 사업체의 2/3를 점유하고 있다.

2. 무기장비 연구생산 능력 제고

□ 선진화된 군수공업 핵심 능력을 건설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공업은 11차 5개년 계획의 목표를 전면적으로 달성하였다.

-무기장비 연구생산 임무의 완수를 보장하였고, 무기장비의 모델 보증과 기초 강화의 상호 촉진 및 협조 발전을 기본적으로 실현하였다.

□ 자주 혁신 능력을 증강하고 있다.

-무기장비 연구생산의 기술수준과 혁신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국방과학기술공업 지적재산권의 등록·운용 및 보호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 무기장비 연구생산 기초 능력을 증강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 기초기반 건설과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 실험실과 국방과학기술공업 선진기술연구응용센터가 국방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3. 군수공업 기술의 평화적 이용

□ 국가 첨단 신기술 산업 발전의 중점 및 방향과 관련하여 군수공업 기술의 확대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 원자력과 공간기술의 평화적 이용과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4. 국제 교류협력 참여

□ 국방과학기술공업은 평등, 호혜, 공영에 따라 대외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 중국정부는 말은 바 국제의무와 국제공약 및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엄격히 이

행하고 있다.

-정부, 회사, 수출기업 등 3가지 측면에서 확산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군수품과 관련된 기술의 수출을 신중한 태도로 다루고 있다.

□중국 정부는 원자력 분야의 국제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23개 국가와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중국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원칙에 의거하여 러시아, 프랑스, 브라질,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우주국(ESA) 등과 공간기술, 공간응용 및 공간과학 분야에서 양자간 협력과 교류를 전개하고 있다.

제8장 국방예산

| | 2008년 | 2009년 |
|-----------------|------------------------------------|-----------------------------------|
| □ 중국 국내총생산(GDP) | 31조 4045억 위안 | 34조 903억 위안 |
| 국가 재정지출 | 6조2592억6600백만 위안 (전년대비 25.4% 증) | 7조6299억9300만 위안 (전년대비 21.9% 증) |
| 연간 국방비 | 4178억 7600만 위안 (전년대비 16.5% 증) | 4951억 1000만 위안 (전년대비 18.5% 증) |

□중국 국방비는 주로 병력유지비, 교육훈련비, 장비비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면, 각 부분이 대체적으로 1/3을 점유하고 있다.

□국방비의 지출 범위에는 현역부대, 예비역부대, 민병이 포함되며, 동시에 사회적 지출도포함된다.

□최근 2년간 증가된 국방비는 주로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부대 근무지원 조건을 개선하였다.

-다양화된 군사임무를 완수하였다: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능력 확보 투자를 증가하였고, 국제구호 등 활동을 지원하였다.

-중국 특색의 군사변혁(RMA)을 추진하였다.

□국가재정은 민생지출을 중점 보장하는 기초 위에 국방비 지출을 필요에 의거 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다.

-2010년 국방예산은 5321억 1500만 위안으로 2009년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국방비 증가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중국은 국방비에 대해 엄격한 재정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9장 군사 상호신뢰 구축

중국은 정치적 상호신뢰의 증진을 기반으로 하고, 공동안보 촉진을 목표로 하여 평등 협상 준수, 상호 핵심이익과 중대한 안보 관심사 존중, 제3국 불겨냥, 타국의 안보와 안정 불위협 및 불훼손 등의 원칙을 견지해 왔으며, 평등, 호혜, 효과의 군사적 상호신뢰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 전략 협상과 대화

중국은 이미 22개 국가와 국방·안보 협상 및 대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이고 심도 있게 발전시키고 있다

-2010년 양국군 총참모부는 제13차 전략협상을 개최하였다.

□중·미 양국은 확산방지, 대테러 및 양자간 군사안보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양국은 2009년 6월과 2010년 12월에 제10차, 제11차 국방부 국방협상을 실시하였다.

-중·미는 2009년 2월과 12월에 제5차, 제6차 국방부 실무회담을 실시하였다.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국방·안보 협상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기타 국가들과 전략 협상 및 대화를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다.

2. 국경 신뢰구축 조치

□중국과 인도는 2005년 4월 『중·인 국경 실제 통제선 지역 군사분야 신뢰구축 조치의 실시 방법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1996년 맺은 신뢰구축조치 협정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였다.

□중국은 7,600km에 달하는 국경선의 일정한 중심 이내에 배치된 작전부대 및 무기 장비에 대해 감축을 진행하였고, 매년 상호(중국과 국경인접국) 시찰활동을 전개하여 국경지역 신뢰구축 조치 이행 상황을 감독, 검증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국경방어부대는 국경선을 연하여 60여개의 국경 회담 및 접촉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인접국과 매년 수천 번의 회담 및 접촉활동을 갖고 있다.

□국경선대표제도를 수립하여 인접국들과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지 않는 국경사무를 처리하는데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3. 해상 안보대화 및 협력

□중국은 국제 해상 안보대화과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중·미는 1998년 해상 군사안보협상(MMCA) 체계를 구축하여 해상 군사안보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2009년 8월 중·미 해상 군사안보협상 전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10월 중·미 해상 군사안보협상 연례회동을 실시하였다.
- 중국과 베트남은 북부만 연합초계사무소를 설립하고, 10차례의 합동초계와 5차례의 연례회동을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 2009년 2월 중국과 한국 인접 해·공군간 직통전화로 정식으로 개통하였다.
- 2008년 이래 중·일은 해상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여러 차례 업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최근 2년 중국 해군은 10여 차례에 걸쳐 20여 척의 함정을 30여개 국가에 파견하였고, 20여개 국가의 30여 척의 함정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4. 지역 안보 협력

- 2009년 이래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안보분야 협력은 양호한 발전 추세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 중국은 아세안 지역 포럼(ARF), 중국과 아세안(ASEAN+1), 아세안과 한·중·일(ASEAN+3)의 틀 내에서 다자간 안보회의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5. 대외 군사교류

- 최근 2년 동안 인민해방군 고위급 군사대표단은 40여개 국가를 방문하였고, 60여개 국가의 국방부장 및 총참모장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 주변 국가와 군사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 북한 및 한국군과의 우호적인 왕래를 전개하고, 중·일 국방교류를 증시하고 있다.
 - 중·파키스탄 양국군간 전방위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 중·인 양국군 관계 발전에 진력하며, 아세안(ASEAN) 국가 군대와의 우호 교류를 강화하고, 호주 및 뉴질랜드 등 국가와의 군사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 개발도상국과의 군사교류를 발전시키고 있다.
 - 군대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청년 및 중견 장교 교류를 전개하며,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확대하고 있다.
 - 아프리카 국가에 최초로 병원선 “평화방주”함을 파견하여 인도주의 의료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10장 군비통제와 군축

1. 핵 군축

- 중국은 핵무기의 전면적인 금지와 철저한 폐기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 국제사회는 최종적으로 전면적이고 철저한 핵무기 감축을 위해 ‘핵무기 전면 금지 공약’ 체결을 포함한 확실한 실행 가능한 단계적인 장기계획을 적시에 제정해야 한다.
- 중국은 건설적인 태도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심의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조약 체결국과 함께 2010년 제8차 심의 대회에서 획득한 긍정적인 성과를 진지하게 이행하기를 희망한다.
-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체약국으로서 지금까지 핵무기 감축 의무를 회피하지 않았으며,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지는 핵 정책을 시행해왔다.
- 중국은 ‘핵실험 잠정 중단’공약을 줄곧 준수해 왔고,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준비위원회 업무에 적극 참여하였다.
- 중국은 핵무기 미보유국의 비핵무기 지대 건설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이미 공개되고 조인된 비핵무기 지대 조약과 관련된 모든 의정서에 서명하고 비준하였다.
- 중국은 범세계 미사일방어계획이 국제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훼손하고, 국제 및 지역안보에 불리하며, 또한 핵 군축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기고 있다.

2. 확산 방지

- 중국은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반수단의 확산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확산방지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하며, 6자회담의 진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진력할 것을 주장한다.
-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고,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것을 주장한다.
- 중국은 확산방지 수출통제 업무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미 핵·생물·화학·미사일 등과 관련된 민감한 품목 및 기술과 모든 군수품을 포함하는 완전한 수출통제법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중국은 핵 안전문제를 중시하고 핵 테러리즘에 반대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핵 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호한 핵 안전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NOTES

3. 화학·생물무기 금지

- 중국은 『화학무기 금지협약(CWC)』 각 조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240여 차례에 걸친 현장시찰을 수용하였다.
- 중국은 『생물무기 금지협약(BWC)』의 효과를 강화하는 다양한 노력을 지지하고, 협약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이행에 진력하고 있다.

4. 우주 군비경쟁 방지

- 중국정부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우주의 무기화와 우주 군비 경쟁에 반대한다.
- 2008년 2월 중국은 러시아와 공동으로 ‘우주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사용 혹은 사용위협 방지 조약(PPWT)’ 초안을 제네바 군축회의에 제출하였다.

5. 재래식 무기 통제

- 중국은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 및 그 의정서가 규정한 각 항의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
- 2009년 이래 중국은 국제 인도주의 지뢰제거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뢰 피해자’ 관련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 중국은 소화기-경량무기(SALW)불법 무역을 척결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6. 군비 투명성과 재래식 무기 이전 등록

- 중국은 군사 투명성 문제를 중시하며, 2007년부터 유엔 군비 투명성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48차 전문가포럼 |
중국 국방정책 어디로 향하는가
-2010 중국 국방백서를 중심으로-

NOTES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48차 전문가포럼 |
중국 국방정책 어디로 향하는가
-2010 중국 국방백서를 중심으로-

NOTES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48차 전문가포럼 |

중국 국방정책 어디로 향하는가

-2010 중국 국방백서를 중심으로-

NOTES